

전주 선미촌, 문화예술·인권 공간으로

시, 성매매 집결지 '문화재생사업' 업사이클센터 조성 본격화 사업비 48억원 투입 폐자원 활용 제품 상설 전시·판매 기대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핵심인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본격화했다.

시는 최근 '전주 업사이클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중순까지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비 24억원 등 총 48억원이 투입되는 업사이클센터 조성사업은 선미촌 내 건물 2채를 매입 후 리모델링한 후 업사이클 판매 전시실과 연구공간 및 작업장,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업사이클센터에 지역 특색을 살린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공간도 함께 조성키로 했다.

또 '지역 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운영 전략모델로 정하고,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보육 지원, 제품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사이클 문화조성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업사이클 작품 상설·기획 전시 기능도 보강키로 했다.

업사이클센터가 설치되면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전주가 국내 업사이클산업 선도도시고, 손의 도시(핸드메이드시티)로

서의 위상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공사 기간 중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운영방안에 포함하는 등 사전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 업사이클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업사이클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광 상품 개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안심가로등 설치 주민 야간 보행안전 도모

정읍시는 주민 보행안전을 위한 '안심가로등'을 설치한다.

안심가로등 설치 사업은 지난 8월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또 해당 사업지 복지 위기가정의 지원을 병행하게 돼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연말까지 천변 뱃길길 일부구간과 국민체육센터 주변 등에 50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심가로등은 낮 시간에 충전된 태양에너지를 야간에 불을 밝히는 태양광 LED다.

이 가로등은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완전 충전 시 5일 이상 점등이 가능해 전기절약과 탄소발생 저감 등의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 사업'은 안심가로등 설치지역인 상교동과 내장상동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41가구를 선정해 생계비, 난방비, 의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우범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가로등 설치 예산 절감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중앙도서관, 청소년문화체육관, 어린이교통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주변에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유기상 고창군수(가운데)는 지난 21일 청보리밭 거점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학원농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관광명소 '청보리밭' 시설 보강 추진

농민 소득 제고·방문객 편의 증진 위해 산책로·쉼터 등 설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창군 내 '청보리밭'이 농민소득 제고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이 보강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21일 청보리밭 거점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학원농장을 방문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원농장은 매년 청보리밭축제와 해바라기축제, 메밀꽃잔치 등의 축제로 연중 50만여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군은 청보리밭축제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비와 군비 등 10억원을 투입해 산책로 조성, 화장실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보리밭에 새로운 돌레길을 조성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각도의 청보리밭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경관포토존, 쉼터, 수유실, 물품보관실 등을 추가로 설치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경관농업의 자부심을 갖고 내년엔 열릴 '고창청보리밭축제'가 농업과 관광, 문화가 결합된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시 관급공사 지역업체와 우선계약 확대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 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체결해 다양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10월말 기준 63.4%(전체 계약 건수 3002건 중 1906건)를 차지한 지역업체 계약 비율을 2019년도에는 3%이상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 시 지역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재,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

이 후 각종 관급공사 등 지역업체에 대

한 수주를 확대하고 모든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지역생산 자재·제품을 공사설계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보조단체의 사업시행 시에도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외업체 구매 최소화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내에서도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지난 20일 정현복 광양시장과 치매유관기관 대표, 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

60세 이상 노인 치매 조기검진·예방·체계적 관리

광양시 보건소는 치매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일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치매유관기관 대표, 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 보건소는 이번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치매안심센터를 임시로 개소하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치매관리에 매진해왔다.

이번에 개소한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7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억 9천여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593㎡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1층 검진실과 상담실, 2층 프로그램실, 진료실, 3층은 사무실을 갖추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치매유관기관 대표, 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검진실, 교육실, 상담실, 가족쉼터 등이 완비돼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아울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시 배치돼 치매상담과 등록, 약제비지원, 치매조기검진, 치매실종노인예방,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해남군, '문화유산 총서' 발간 소중한 문화자원 지킨다

해남군은 지역내 유·무형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원형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해남 문화유산 총서'를 발간한다.

이번 발간사업은 각종 개발사업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소멸되는 것에 대비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업은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사업'과 '유형문화유산 학술연구조사'로 진행된다.

올 해에는 첫 단계로 제1책 '해남 우수영 들소리'와 제2책 '해남 씨감굿'이 발간된다. 또 다류영상 '어깨춤 들썩이는 우수영

들소리', 기록영상 '이수자의 해남 씨감굿' '서초희의 해남 씨감굿'도 제작된다.

내년에는 제3책 '해남 강강술래', 제4책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 제5책 '해남의 성(城)', 제6책 '해남의 고인돌'을 발간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총서 발간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문화유산 정보를 집대성할 계획"이라며 "총서 발간으로 해남 문화유산 홍보는 물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정읍시, 동학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 제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동학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 대회는 오는 2019년 2월

24일 열린다.

이 대회는 42.195km 풀코스과 21.097km 하프 코스, 10km, 5km 등 4개 주 종목과 10개 세부종목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5km는 1만원, 풀·하프·10km는 3만원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